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

# 새로운 집, 오래된 기억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

# 새로운 집, 오래된 기억



# 새로운 집, 오래된 기억

발 간 사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장  
축 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서구 국회의원



## 01 면담자 소개 14

김혜경  
남영순  
이승지  
전미경

## 02 구술자 소개 18

권태모  
김제현  
류재철  
박광모  
이택수  
이호근  
추응준  
한호근  
황순서

## 03 피란민 이야기

한 번은 다시 보고픈 아득한 나의 고향 - 권태모	26
따뜻했던 할머니 등으로 기억될 피란의 길 - 김제현	32
피란의 아픔 속, 더욱 빛났던 아버지의 노력 - 류재철	38
전쟁과 피란의 아픔을 위로했던 제2의 고향 공촌동 - 박광모	44
피란민 수용소의 어린아이가 선생님이 되어 - 이택수	50
배고픈 피란 생활 속 더욱 빛이 난 그 이름 - 이호근	56
포화 속 피란 길과 불꽃 속 삶의 길 - 추응준	62
토굴 속 아버지를 지켜낸 불굴의 용기 - 한호근	68
피란과 함께 고향에 두고 온 그리움의 시간 - 황순서	74

## 04 면담자 인터뷰 80

김혜경  
남영순  
이승지  
전미경



고향을 떠난 아픔을 희망이라는 삶의 의지로  
극복하신 여러분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장 정군섭입니다.

여느 해 보다 빨리 찾아온 추위가 익숙해지는 12월, 지난해를 보내는 아쉬움에서 새해 희망의 기원을 마음속에 한가득 품어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올해는 우리 민족의 비극-한국전쟁(1950~1953)의 정전(停戰)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기, 꿈에서도 본 적 없는 전쟁을 겪으며 실향의 아픔을 가슴에 묻은 채, 인천 서구에 터를 잡고 삶의 의지를 다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인천 서구는 지리적인 접근성 때문에 황해남도 연백군과 웅진군 등지로부터 많은 수의 실향민이 유입되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북에 두고 온 고향은 꿈에서야 갈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인천 서구는 실향민들에게 분단의 아픔과 생이별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묻고, 삶을 살아낸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지난 21년간 지역문화를 보존하고 기록해온 우리 문화원은 실향민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기록보존의 시급성을 느끼고,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의 일환으로 구술채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 오래된 기억』을 발간하여 그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수집된 자료들을 통해 어려운 삶을 극복 해낸 우리 이웃의 이야기가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께 또 다른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구술채록 사업으로 서구 지역학 연구의 외연이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하여 서구의 역사를 재조명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원은 지역학 연구의 전문기관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사를 기록하고, 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을 발간하기까지 도움을 주신 김혜경, 남영순, 이승지, 전미경 면담자와 소중한 기억을 내어주신 권태모, 김제현, 류재철, 박광모, 이택수, 이효근, 추응준, 한호근, 황순서 구술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청장 강범석입니다.

『새로운 집, 오래된 기억』 발간을 축하드리며 서구의 옛 기록, 사람들의 기억을 남기기 위해 애쓰신 김혜경, 남영순, 이승지, 전미경 면담자와 삶의 기억을 기꺼이 내어주신 권태모, 김제현, 류재철, 박광모, 이택수, 이호근, 추응준, 한호근, 황순서 구술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은 2022.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에 이어 진행되는 구술채록 프로젝트로 70대 이상 주민에게 흐릿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서곶 지역과 검단 지역의 피란민 마을의 자료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인천 서구는 루원시티,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경서지역의 다발적 도시 개발 사업과 아라뱃길, 청라 연륙교, 인천지하철 2호선 등 교통 환경의 변화를 지나왔습니다. 그 과정 중 우리가 잊고 있었던 도시 변화에 대한 기록은 개발 현장이나 새롭게 생겨난 공간을 소개하는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서구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삶을 꾸려온 구민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지역사를 남기기엔 관심이 부족한 시절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지역 기록사업으로 풀어보고자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이 추진되었고, 기록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피란민 마을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구술자 9명의 삶에서 찾아냈다는 것에 앞으로 서구에는 귀한 자료가 축적되고 서구의 삶이 남겨진다는 서구 기록의 새로운 발돋움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새로운 집, 오래된 기억』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보편적인 삶, 서구 누구나의 삶이 서구의 생활사가 될 수 있다는 가치를 느끼시어 나의 삶의 기억을 나누어 주는 서구 구술자가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기에 구민이 함께한 서구의 시간이 가치있었음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을 함께 기억하는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그 기억을 나누어 주시는 서구민, 이들과 함께해 주시는 면담자 선생님의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의장 고선희입니다.

2023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치열했던 날들을 되새기며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품고 갑진년(甲辰年) 한 해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서구의 지난 1년은 ‘60만 서구시대’를 열고 거침없이 달려왔던 힘찬 여정이었습니다. 서구에 산다는 자긍심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놀라운 발전을 만들어주신 우리 서구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민의 열망을 반영하여 서구문화원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구민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선주민과 이주민 이야기’를 채록하였고, 이번에는 『새로운 집, 오래된 기억』이라는 주제로 소중한 기록물을 만들어주었습니다.

‘피란민’은 가슴 아픈 역사의 상징이자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 개인의 삶에 드리운 암울한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분투한 인간적인 삶의 표상입니다. 여기에는 고향을 떠나며 보여준 결단과 용기,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암울한 시간을 버텨낸 강인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삶의 터전 서구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품었던 희망과 눈물 어린 땀이 흐르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가족에 대한 사랑과 생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면을 빌어 구술자로 나서주신 아홉 분의 구민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의 역사를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생활사 아카이빙 프로젝트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문화를 만드는 사람의 도시, 서구!’를 위해 애써주신 정군섭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천서구갑 국회의원 김교홍입니다.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 『새로운 집, 오래된 기억』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삶의 기억을 나눠주신 권태모, 김제현, 류재철, 박광모, 이택수, 이호근, 추응준, 한호근, 황순서 구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을 위해 애쓰시는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정군섭 원장님과 전문 면담자 및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서구에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다양한 삶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 한국전쟁 피란민들께 서구는, 애환이 진하게 묻어나는 삶의 터전입니다. 전쟁을 피해 많은 분들이 내려오셨고 서곶 지역과 검단 지역에는 피란민 수십 가구가 모인 피란민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고향을 떠나와 피란살이의 어려움 속에 싹 틔운 희망은 오늘의 서구를 있게 한 든든한 뿌리가 됐습니다. 전쟁이 멈춘 지 70년이 흘렀지만 정작 피란민에 대한 자료와 기록들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피란민의 기억이 기록으로 남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 시대를 살아오신 주민 여러분의 삶의 흔적과 기억을 아카이빙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힘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지나온 삶은 서구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께서 나누어 주신 ‘기억의 구슬’을 기록으로 잘 꿰어내 ‘우리 공동체의 역사’가 되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천 서구를 국회의원 신동근입니다.

먼저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 『새로운 집, 오래된 기억』’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료집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정군섭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새로운 집, 오래된 기억』 결과 자료집은 인천 서구 실향민들의 이야기를 구술채록하여 연구 및 역사적 활용을 하고자 하는 지역 자료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큰 상흔을 남긴 한국전쟁으로 인해 많은 실향민들이 고향을 등져야 했습니다. 인천 서구는 그렇게 월남한 실향민들이 대거 유입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인천 서구의 실향민들은 고향, 가족, 친우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또 하나의 삶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인천 서구의 국회의원으로서, 서구의 발전에 있어 실향민분들이 해주신 역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실향민분들의 생활과 피란민 마을에 대한 공적 기록이 빈약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실향민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인천 서구의 역사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아픈 역사라 하더라도 기록 및 보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의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 『새로운 집, 오래된 기억』’ 자료집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실향민 1세대 분들의 고령화로 인해 우리의 역사는 점점 잊히고 있습니다. 인천시 역시 2020년에 4,023명이었던 이산가족 생존자 수가 지난해 3,452명으로 크게 감소한 만큼, 실향민분들의 역사를 보존하고 기록하는 작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오늘 발간되는 자료집에 구술된 실향민분들의 기억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위로함과 더불어 인천 서구의 기록에 보다 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실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 역시 인천 서구의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인천 서구의 역사적 기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01 면담자 소개



면담자 김혜경은 1963년생으로 부평에서 태어났다. 인천시문화관광 해설사, 부평문화원지역문화해설사, 인천길탐방해설사 활동을 하고 있다.

황해도 연백군에서 피란을 내려와 대곡동에 정착하신 류재철 선생님과 황해도 옹진군 순위도에서 피란을 내려오신 추응준 선생님을 만나 구술 채록을 진행하였다.



면담자 남영순은 1977년생으로 현재 인천지역문화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황해도 옹진군에서 태어나 12살에 피란을 내려와 서구에 정착하신 이택수 선생님과 경기도 장단군에서 태어나 6살 때 피란을 오신 뒤 서구에 정착하신 김제현 선생님을 만나 구술 채록을 진행 하였다.



면담자 이승지는 1981년생으로 2010년부터 인천시 서구에 거주하였으며, 역사 문화체험강사, 인천 서구 역사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황해도 옹진군에서 피란을 오신 황순서 선생님을 비롯하여 피란과 전쟁을 겪고 현재는 서구에 정착한 이효근 선생님과 한호근 선생님을 만나 구술 채록을 진행하였다.



면담자 전미경은 1974년생으로 프리랜서 역사 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

황해도 옹진군 동남면 용호도리에서 피란을 내려오신 박광모 선생님과 피란과 전쟁을 겪고 현재 서구 가좌동에 정착하신 권태모 선생님을 만나 구술 채록을 진행하였다.



# 02 구술자 소개

구술자 소개

구술자 소개

구술자 소개

구술자 소개

구술자 소개

구술자 소개

구술자 소개

구술자 소개

구술자 소개



**구술자 권태모**는 1944년생으로 황해도 연백군 용매도에서 태어났다. 1950년에 피란을 내려와 연평도, 장봉도, 신도를 거쳐 서구 가좌동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는 면담에서 황해도 용매도의 모습과 피란 과정에서 가족이 겪은 일들에 관한 이야기, 전쟁에 관한 이야기, 서구 가좌동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 등을 구술하였다.

**구술자 김제현**은 1945년생으로 경기도 파주시 장단군 장단면 도라산리에서 태어났다. 1951년 1.4후퇴 때 가족들과 함께 피란 오게 되었다.

당시 어린 나이로 많은 기억은 없으나, 임진강 다리가 폭파되었던 이야기나 1983년에 처음 내 집 마련을 통해 정착한 인천 서구 신현동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 등을 구술하였다.



**구술자 류재철**은 1937년생으로 황해도 연백군 유곡면 계화리에서 태어났다. 1951년에 피란 내려와 강화, 김포를 거쳐 서구 대곡동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는 면담에서 황해도 연백군의 모습과 피란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정착 생활 및 공직생활을 통한 인천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구술하였다.



**구술자 박광모**는 1946년생으로 황해도 웅진군 옹호도에서 태어났다. 1950년에 피란을 내려와 백령도와 북성동을 거쳐 서구 공촌동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는 면담에서 형의 도움을 받은 피란의 과정과 피란민의 생활상에 관한 이야기, 서구에서 살며 겪은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구술하였다.

**구술자 이택수**는 1937년생으로 황해도 웅진군 송림면에서 태어났다. 1951년에 피란을 내려와 대수압도, 연평도, 만석동을 거쳐 검단면 금곡리에 정착하였다.

그는 까치산 전투, 북한의 관혼상제 문화와 1999년 교단에서 내려와 공로 퇴직하기까지 겪은 서구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구술하였다.





**구술자 이효근**은 1945년생으로 황해도 신흥군 광대리에서 태어났다. 1949년에 인천 주안으로 내려왔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제주도와 부산으로 피란을 갔다. 인천 수도국산 근처에서 살다 인천 서구 석남동에 정착했다.

그는 전쟁과 피란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의 과정을 구술하였다.

**구술자 추응준**은 1936년에 황해도 웅진군 흥미면 순위도에서 태어났다. 1950년에 아버지, 작은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피란 나왔다. 덕적도 피란민수용소에서 안동포로 이동, 정착해 살고 있다.

그는 면담에서 순위도의 모습, 피란 과정에서 어려움과 정착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구술하였다.



**구술자 한호근**은 1943년생으로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서 태어난 뒤 해방 이후 인천 용동으로 이사 왔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홍성으로 피란을 갔다가 1951년 이후 동인천으로 돌아왔다.

그는 면담에서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피란 과정에 관한 이야기, 인천에서의 학교생활 등에 관하여 구술하였다.

**구술자 황순서**는 1943년생으로 황해도 웅진군 흥미면 냉정리에서 태어났다. 1950년에 피란을 내려와 충청도와 무의도를 거쳐 서구 공촌동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는 성인이 된 이후 서구에서 새마을금고를 열고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오랜 기간 거주한 서구의 변화에 대하여 구술하였다.



# 03 피란민 이야기

# 권태모

## 약력 및 주요 활동

- 1944년 황해도 연백군 출생
- 1964년 철도청 입사
- 1965년~1967년 해병대 복무
- 1967년 월남전 참전
- 2004년 철도청 퇴사





## 한 번은 다시 보고픈 아득한 나의 고향

권태모

권태모는 1944년 황해도 연백군 청룡면 용미리의 용매도에서 태어나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피란을 내려와 연평도, 장봉도, 신도를 거쳐 인천 만석동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 성인이 되어 철도청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해병대에 입대해 월남전에 참전하여 베트남 짜빈동에서 한국 해병대와 북베트남군 간에 벌어진 짜빈동 전투에도 참여하였다. 제대 후 잠시 용현동(독쟁이)에서 생활하다 나무와 들판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 가좌동으로 오게 되었다.

그는 초기가 많이 잡히던 황해도 연백군 용매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중선배<sup>1)</sup> 1척을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는 조기잡이를 하셨고, 어머니는 밭농사를 지었다. 3남 1녀의 막내로 태어난 그는 햇빛에 널어놓은 왕새우를 까먹던 시절, 지척에 있는 북한 땅의 인민군들이 마을에 들어온 모습을 보며 전쟁이 시작된 것을 알았다. 90세가 넘는 할머니와 아버지는 고향에 남게 되었고, 어머니와 남매들은 배를 타고 연평도로 피란을 내려오게 되었다. 연평도에서는 일주일 정도 연평 초등학교 건물에서 지냈다. 이후 장봉도와 신도를 거쳐 인천 만석동의 피란촌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당시 삼화제분 근처의 인천 제4교회에서 운영하는 피란민 학교 1학년에 입학하였다. 피란민들이 늘어나자, 더 큰 인천제일교회의 피란민 학교인 무궁화 국민학교 3학년으로 전학 가게 되었다. 어머니는 새우젓 장사를 하셨고, 형들도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교회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검정고시를 통해 동인천 중학교에 입학했다. 만석동에서는 20살까지 거주했고, 그 무렵 군대를 해병대로 지원했다. 어렵게 사는 가족들을 위해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었다. 힘든 훈련을 받고 1년간 월남 파병을 갔다. 기후도 다르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던 월남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갈증이었다. 월남에서의 군 생활은 훈련이 아니라 실전 전투였다. 1967년 2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벌어진 짜빈동 전투, 통신병의 임무를 맡았던 그때의 일들은 두려움보다

젊은 열정으로 싸웠던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신화를 남긴 해병은 나라에서 훈장과 1계급 특진을 선물로 받았다. 제대 후, 철도청으로 복직해 인천역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했다. 학창 시절 짝꿍이 살고 있었던 서구 가좌동에 땅을 구입, 28세가 되던 1968년 인천 신도가 고향인 아내와 결혼하여 그곳에 신혼살림을 꾸렸다. 서구에서 생활한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구는 참 많이 변했다. 개건너라 불리던 주변엔 넓은 면적의 염전이 있었는데, 친구들과 수영하며 놀았던 곳이다. 가좌동 사람들은 갯지네를 많이 잡아 낚시꾼들에게 팔았다. 가좌동 주변에는 대형 목재 단지가 많이 있었다. 땀감이 부족했던 시절, 목재 단지에서 나오는 자투리 목재로 난방을 해결했다. 철도청에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증기기관차, 디젤차, 동차까지 경인 철도에 관한 많은 것을 경험했다. 가좌동 진주 아파트와 재래시장이 들어서서 보는 것도 보았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새마을 운동으로 도로에 돌을 깔기도 하고 초가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변하는 것도 보았다. 월남 파병 가기 전, 따뜻한 쌀밥과 콩치 통조림, 신탄진 담배 한 갑을 사주며 월남 파병을 끝까지 만류했었던 친절한 이병용 해군 의무관을 꼭 한번은 만나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싶다. 그리고 어릴 적 떠나온 나의 고향을 연평도에 가서 망원경으로라도 꼭 한번은 보고 싶다.



1)중선배 : '중선'의 방언, 큰 배보다 작은 배를 이르던 말



구술자 권태모와의 면담은 인천 '서구 보훈회관'에서 옛 기억 소환에 설레며 밝은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지만 가족과 용매도에서의 일상을 자세히 설명해 황해도 연백군의 용매도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고 면담을 진행하며 과거 이야기들을 회상하며 면담이 진행되었다.

그와의 면담을 통해 쌀을 제외한 조기와 새우, 딸기 등 먹거리가 풍부했던 황해도 연백군 용매도의 모습과 피란길에 잠시 머물렀던 연평도, 장봉도, 신도의 모습, 피란민촌에 정착해 가장 오래 거주했던 만석동의 모습과 피란민들의 생활을 알 수 있었다.

성인이 되어 철도청에 입사해 경험했던 이야기를 통해 경인 철도의 역사와 기차의 변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50년을 넘게 살면서 보고 겪은 서구의 옛 모습을 상세히 설명해 지금의 서구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이번 면담을 통해서 인천 서구에 황해도 피란민들이 언제, 어떤 경로로 거주하게 되었는지와 어떻게 생활했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 김제현

## 약력 및 주요 활동

- 1945년 경기도 파주시 장단군 장단면 출생
- 1951년 피란 후 서대문구 상암동 정착
- 1954년 구락부학교 4학년, 수색 초등학교 5학년 입학
- 1960년 남대문 중학교 입학
- 1963년 광운 통신 고등학교 입학
- 1965년 해군 입대
- 1967년 하사 임관
- 1999년 전역
- 2001년~2017년 인천공항 보안팀





## 따뜻했던 할머니 등으로 기억될 피란의 길

김제현

김제현은 1945년에 경기도 파주시 장단군 장단면 도라산리에서 태어났다. 1951년에 1월 4일 6세 때 할머니 등에 업혀 고양시 원당동 피란민 수용소에서 생활하다가 서대문구 상암동에서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72년 결혼 후 1983년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하여 인천 서구의 신현동으로 오게 되었고, 현재도 그 집에 살고 있다. 남대문 중학교, 63년 '광운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5년 해군에 입대하여 99년 전역하였다. 현재는 유치원 소독 업무를 하고 있다.

6남매 중 둘째였던 김제현은 남동생까지 태어났을 때 전쟁을 겪었고 6세가 되던 1951년 1.4후퇴 때 할머니 등에 업혀 피란 길에 올랐다. 어렸기 때문에 많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임진강 다리가 폭파돼서 인민군들이 밤새 수리하면 미군 전투기가 와서 다리를 부수고 갔다는 이야기, 인민군들이 시체의 옷을 벗겨서 그의 집에서 빨아서 입으려고 했던 것 등 부모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와 가족들은 고양시 원당동 피란민촌에 살다가, 피란을 가서 비어 있었던 서대문구 상암동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1년쯤 살았을 때 주인이 돌아왔고, 그 주인의 친척 집으로 옮겨가 세를 살게 되었다. 방 세 칸에 조부모님, 부모님, 6남매, 작은아버지, 고모들까지 열다섯 명이 한 집에 살게 되었다. 얼마 지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구락부'라는 데서 4학년에 다니다가 졸업은 수색 초등학교에서 하게 되었다. 남대문 중학교를 거쳐 '광운통신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가족은 많은데 경제활동은 부모님밖에 할 수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방과 후에는 부모님을 도와야 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여행을 다닐 여력이 없었다. 고등학교에서 통신에 취미를 갖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통신 관련 업무를 하는 해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1965년에 입대하여 진해, 인천 등지를 다니면서 군 생활을 하였다. 1972년 결혼해서 1983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사서 처음으로 인천 서구에 살게 되었다.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고향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이복을 바라다볼 수 있는 곳에 땅을 사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을 거기에 모시게 되었다. 1967년

해군 하사로 임관하고 1999년 전역을 하였다. 제대 후 2001년 인천공항이 개통하기 이틀 전인 3월 27일 인천공항 보안팀에 입사하였다가 현재는 어린이집을 소독하는 업무를 하며 지내고 있다.





구술자 김제현과의 면담은 '서구 보훈회관'에서 진행되었다. 6세 때 피란을 나온 김제현은 고향에 대한 기억은 많이 갖고 있지 않으셨다.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피란 당시 이야기, 서대문구 상암동을 고향으로 삼고 살았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내 주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겠지만 피란 와서 열다섯 명이나 되는 대식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부모님을 돕느라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했던 김제현. 27세에 결혼하여 약 10년 후에 내 집 장만을 하여 서구 신현동으로 오게 되었다. 생애 첫 내 집 장만을 한 이 공간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30년째 살고 있다. 비록 일을 하느라 부인과 자식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소풍, 운동회에 참여는 못했지만 항상 부지런히 그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온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듯해서 보는 내내 가슴이 찡했다. 인터뷰 내내 '내가 잘하고 있나요?'라고 걱정하셨지만, 조용하고 침착하게 자신의 서사를 써 내려가고, 욕심을 내기보다는 현실에 충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보는 이에게 하여금 귀감이 되기 충분했다.





# 류재철

## 약력 및 주요 활동

- 1937년 황해도 연백군 출생
- 1951년 연백군 유곡면에서 피란 내려옴
- 1960년 공군으로 입대
- 1965년 결혼
- 1967년 인천시 공채 합격
- 1999년 인천지하철 건설본부 본부장
- 2000년 인천시 공무원 퇴직
- 2005년 이산가족 화상 상봉





## 피란의 아픔 속, 더욱 빛났던 아버지의 노력

류재철

류재철은 1937년 황해도 연백군 유곡면 계화리에서 태어나 유곡국민학교(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살았다. 1.4후퇴 후, 1951년 배를 이용해 강화도 산이포로 피란 내려왔다. 이후 아버지가 먼저 피란 내려와 계시던 대곡동에 자리하게 되었다. 대곡동에서 아버지는 남의 집 일을 해 주며 생활하시고 류재철은 일자리를 찾아 인천 상점의 점원 생활을 하였다. 성인이 되고 인천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며 공직생활을 시작하였다. 33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와 양봉을 하며 대곡동에서 살고 있다.

류재철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마을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세 명의 동생들과 살았다. 1951년에 피란 내려와 강화도 산이포에서 김포 대곶면을 거쳐 서구 대곡동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는 면담에서 황해도 연백군 유곡면 및 주변 면의 모습과 생활 풍습, 인천에서 정착하고 살아온 이야기를 구술하였다. 류씨 집성촌의 종손이었던 류재철은 어른들과 흥현장에도 다니고 배천온천도 여러 번 갔었다. 흥현장은 연백평야에서 생산한 쌀과 잡곡을 매매하는 곳이어서 개성상인들이 와서 사갔다. 해월면에는 광산이 있어 동네사람들 중에서 금광에 노동하러 가는 사람도 있었다. 결혼을 할 때 신부는 가마를 타고 오고, 예단을 해 오는데 동네사람들이 무엇을 해 왔는지 평가를 하였다. 또 집안에서 새색시를 초청해 밥을 한 번씩 해 주었다. 잔치국수와 돼지를 잡아 나눠 먹었다. 결혼 축하금으로 계란 몇 꾸러미, 국수 몇 관, 떡 한 가마를 내었다. 결혼해서 처갓집에 갈 때는 떡을 두 광주리 해서 소에 싣고 가서 나눠 먹었다. 상을 당하면 베옷을 입고 상여를 이용해 선산에서 장사지냈다. 초상이 나면 친척들이 팔죽을 썬 가져오고 3년 상을 치렀다. 대동계가 있어서 동네 대소사를 함께 참여하고 힘을 보탰다. 정월 대보름에는 세거리 사람들과 돌쌈 놀이나 쥐불놀이하며 즐겼다. 생산물이 풍족해서 떡이나 엿도 크게 만들어 먹었다. 인절미에 팥을 넣고 콩가루를 입혀 먹었고 밀가루로 칼국수나 수제비를 해 먹기도 하였다. 면 단위로 학교가 하나씩 있어서 30분

거리의 유곡국민학교를 다니며 봄, 가을에 토미산이나 봉화산으로 소풍을 다니고, 홍군과 청군으로 나누어 콩 던지기, 줄다리기, 기마전 등 운동회도 하였다. 38선 경계와 가까웠던 고향에서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포 소리가 울리고 조명탄이 쏘아지는 것을 진병산에 올라서 보고 당일에 전쟁이 났음을 알게 되었다. 서울 수복 후 유엔군이 북진할 때는 비행기에서 북한군에게 자수하라는 빠라(전단)를 뿌리는 것을 보았다. 전쟁이 나자 아버지와 삼촌 두 분이 먼저 피란을 갔다. 이후 1951년 7월에 일주일만 피란갔다가 돌아오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류재철은 동네분들과 정보원 배를 이용해 개풍군 창릉에서 강화도 인화리까지 내려왔다. 다시 대곡동으로 이동해서 정착하였고 당시 아버지는 남의 집 농사를 맡아서 하게 되고 류재철은 인천 상점의 점원으로 나갔다. 학교를 졸업 못한 것이 아쉬워 점원 생활을 하며 향도중학교 야간과 양곡중학교를 졸업하고 송도고등학교 야간에 들어갔다. 학비와 생계 때문에 돈을 벌며 졸업까지 하였다. 새어머니는 2000년에 먼저 돌아가셨는데 상여를 이용해 장례를 지냈다. 동네에 상엿집이 있었지만, 지금은 쓰는 사람이 없어 흥물이 되었다. 동네에 대동계가 있어서 상을 당하면 쌀을 거두고 참여하였다. 대곡동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송림시장, 송현시장에 가서 팔았다. 인천시 공무원 공채 모집에 합격하여 1967년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99년 인천지하철 건설본부 본부장까지 거쳐 2000년 공직생활 33년을 뒤로 하고 퇴직하였고 현재는 아버지가 일구어놓으신 대곡동에서 포도 농장과 양봉을 하고 있다.





구술자 류재철과의 면담은 그의 자택에서 진행되었다. 반갑게 맞아 주셔서 밝은 분위기로 진행할 수 있었다. 미리 준비해 간 지도를 통해 황해도 연백군에 대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천천히 어릴 적 기억부터 회상하며 면담이 진행되었다. 그와의 면담을 통해 황해도 연백군의 각 면마다 생산되는 자원이 다르고 생활 모습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흥현장에는 곡식이 많이 거래가 되어 개성상인들도 곡식을 구입하러 오고 갔다는 이야기에서 연백평야에서 많은 곡식이 생산되었다는 것과 혼례와 상례 등 지금은 사라진 풍속이 연백군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배천온천, 해월면 금광에 다녀왔었다는 구술을 듣고 교과서에서만 알던 연백군의 자원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피란민들이 대곡동에 자리 잡게 된 이유가 농사 경험이 있는 연백 평야에서 살던 분들이 평야가 있는 김포나 대곡동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왔다는 구술에서 황해도 피란민들의 이동 경로를 짐작케 하였다. 2000년도까지 대곡동에서 진행되었던 상례에서 상여를 사용하였다는 구술과 성인이 되어 인천시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하며 인천지하철 1호선 완공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번 면담을 통해 일주일만 전쟁을 피해서 피란 나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나온 것이 없던 실향민의 힘든 정착 과정과 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아픈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 박광모

## 약력 및 주요 활동

---

- 1946년 황해도 옹진군 용호도 출생
- 서곶초 입학
- 1974년 풍산금속 입사
- 풍산금속 퇴사
- 이구산업 입사
- 이구산업 퇴사
- 2003년 대경민박식당 개업
- 현재) 대경민박식당 운영



## 전쟁과 피란의 아픔을 위로했던 제2의 고향 공촌동

박광모

박광모는 1946년 황해도 웅진군 용호도에서 9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 한가로운 어촌마을에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피란 내려와 백령도와 인천 북성동을 거쳐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자리하게 되었다. 인천 만석동과 공촌동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으며, 이후 성인이 되어 강원도 화진포와 고성에서 하사관으로 군 복무하였다. 제대 후 풍산금속에 이구산업에서 일하다 2003년 인천 웅진군 영흥면 선재도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는 어릴 적 황해도 웅진군에 살며 체신부에 근무하는 아버지와 재래식 김을 채취 하셨던 어머니와 함께 용호도 어촌마을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농지가 거의 없었던 용호도 사람들은 순위도에서 많이 나는 쌀을 수산물과 물물교환해서 생활했으며, 마을에 초상이 나면 팔죽을 쑀어 대접했다. 전쟁이 시작됨은 마을에 포탄이 떨어지는 모습과 마을사람들과 함께 방공호로 대피했던 모습으로 알게 되었다. 전쟁이 발발하고 어머니, 형, 누나와 피란을 내려오게 되었다. 당시 아버지의 소식은 알지 못했으며 학도의용군이었던 형으로 인해 배를 타고 백령도로 피란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났고, 짧게 거주했지만 사곶해변과 그곳에서 야구와 축구를 했던 기억도 있다. 백령도에서 배를 타고 인천 북성동에서 임시 피란 생활을 시작했다. 다른 피란민들과 군인텐트를 치고 화덕에 밥을 해 먹고 살았다. 북성동에서 피란민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서구 공촌동으로 오게되었다. 인천시에서는 살 수 있는 땅과 집을 지을 수 있는 자재를 나누어 주었고, 집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천막생활을 했다. 당시 비포장도로의 낙후된 지역이었던 공촌동에 자리잡은 사람들은 서로 품앗이를 해주며 집을 지었다. 방 2개와 마루, 우물이 있는 집을 지었는데 우물은 직접 팠다. 공촌에는 어느 곳을 파도 물이 나오는 물이 풍부한 곳이었다. 서구 공촌동에 정착했을 때, 의정부에서 '하우스 보이'로 있었던 형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한 반에 100명이 넘었던 당시, 서곶초등학교로 전학은 많은 인원 때문에 2학년으로 진학이 어려워 다시 1학년으로 입학했다. 농사를 바로

지을 수 없었던 시절이라 가족들은 공촌동 계곡에서 자갈을 채취해 팔기도 했으며, 나무를 자르고 쪼개서 부평 백마장에 내다 팔아 생활했다. 1968년 만 36개월의 군 생활을 하사관으로 강원도에서 시작했다. 1970년대 공촌동에도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어 초가지붕 개량과 도로공사가 있었다. 지금의 서구청과 주변 도로는 당시 벌판이었으며 주변 도로는 비포장이었다. 제대 후, 1974년 8월 16일 효성동에 위치한 풍산금속에 입사했다. 풍산금속은 군납업체로 선정되면서 복지와 근무환경이 좋은 회사였다. 해외 출장도 많이 다녔으며, 오랜 시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최신 기계를 잘 다루었기에 여기저기 출장 요청이 많았다. 풍산금속에 근무하며 황해도에서 내려온 고향 사람들도 여럿 만났다. 살아오면서 보람과 긍지를 가장 많이 느꼈던 최고의 시절이었다. 선재도가 고향인 아내와 결혼 후 회사가 있는 효성동에 거주했으며, 주변 지인들도 풍산금속에 취직을 시켜주었다. 회사에 다니며 아내와 함께 소, 돼지를 키우는 농장도 운영하였다. 처가도 황해도 연백이 고향이며 피란 내려와 자리 잡은 곳이 영흥면의 선재도였다. 2003년 아내의 고향인 선재도로 거주지를 옮겼다. 처음에는 낯설고 귀양살이하는 느낌이었으나, 점점 선재도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되었다. 바다와 갯벌이 주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선재도에서 민박과 식당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아내의 훌륭한 음식 솜씨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황해도 웅진군의 용호도에서 태어났지만, 서구 공촌동을 제2의 고향이라 생각한다. 공촌동에서 학교 생활하며 자라고 아내와 가족을 일구며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전의 서구의 모습은 많이 사라졌으나 선재도에 사는 지금도 제2의 고향이 그리워 자주 가고 있으며, 꼭 한번은 황해도 용호도의 어릴 적 살았던 집에 가보고 싶다.





구술자 박광모와의 면담은 그의 자택에서 선재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밝은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당시 체신부에서 근무하셨던 아버지와 김을 채취해 넣어 말리는 작업을 하시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황해도 웅진군 용호도의 풍경과 가족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면담을 진행하며 과거 이야기들을 회상하며 면담이 진행됐다. 그와의 면담을 통해 황해도 웅진군 용호도에서는 쌀 농사보다 어업이 주였으며, 순위도의 쌀과 물물교환을 하며 살았던 모습과 피란길에 잠시 머물렀던 백령도와 인천 북성동의 모습, 성인이 된 후 군생활과 풍산금속에 입사해 경험한 이야기로 당시의 모습도 알게 되었다. 피란민으로 처음 정착하게 된 공촌동의 옛 모습부터 1970년대 서구의 새마을 운동 당시 모습과 영흥면 선재도의 아름다움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번 면담을 통해서 인천 서구에 황해도 피란민들이 어떠한 경로로 거주하게 되었는지와 지금의 서구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거 같다.



# 이택수

## 약력 및 주요 활동

- 1937년 황해도 옹진군 출생
- 1951년 피란 후 검단면 금곡리 정착
- 1953년 검단초등학교 5학년 입학
- 1955년 김포중학교 입학
- 1958년 인천사범학교 입학
- 1961년 군입대
- 1964년 수남초등학교 첫 발령
- 1999년 신석초등학교 공로 퇴직



## 피란민 수용소의 어린아이가 선생님이 되어

이택수

이택수는 1937년에 황해도 웅진군 송림면 내동리에서 태어났다. 1951년에 3월 15일 대수압도, 연평도, 만석동을 거쳐 검단면 금곡리에 정착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다. 1964년 수남초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하여 1999년 신석초등학교에서 공로 퇴직하였다.

이택수가 살았던 내동리에는 흙집과 겹집 형태의 집이 있었는데 지붕 하나에 방, 부엌, 사랑채, 거실 역할을 했던 봉당이 있는 겹집의 형태에 거주했다. 주식은 쌀밥보다는 조밥을, 설날에도 떡국보다는 만둣국을 주로 먹는 생활을 하였다. 간식으로 먹었던 일본에서 들여왔다는 ‘호감자’는 이곳 고구마와는 다르게 흰색을 띄고, 그 맛도 일품이었다고 한다. 웃은 양복을 입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결혼을 하면 조끼나 두루마기 등을 갖춰 입을 수 있었지만 대개는 집에서 만든 무명옷을 입었다. 아이가 태어난 집에는 개를 길러서 아이의 대변을 개가 훔아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똥개 문화’와 밭농사를 많이 하는 이곳에서 나무를 때고 남은 재와 소변을 섞어 헛간에서 한참을 묵혔다가 봄이면 밭에 뿌려 거름으로 사용했다는 ‘재 문화’는 재미있고 특색있는 이 지역의 이야기이다. 일제 강점기에 공출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조혼의 풍습도 있었다. 그도 14세에 결혼을 하려고 했으나 피란을 나오게 되면서 못했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었다. 이 밖에 5대째부터는 시향제를 지내는 제례 문화, 공동 상여를 사용하여 장례를 치루었다는 장례문화, 사람이 죽었을 때는 ‘팔죽’을, 제사 때는 ‘만둣국’을 주로 먹었다는 것에서 지역의 특성과 기후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장례식장에서 ‘급새놀이’로 적적함과 슬픔을 달래기도 했고,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는 일을 하지 않고 마을을 다니면서 세배도 하고, 마음 사람들끼리 농사일이 시작되기 전 친목을 도모하기도 했다. 그가 13살이 되던 해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집 앞에 있는 수양산에 올라가면 보이는 까치산에서는 전투의 징후들이 보였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피란 가던 1.4후퇴 때에도 피란을 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듬해 3월 15일 대수압도로 피란을 나오게 되었다.

대수압도까지 피란 나오셨던 할머니가 고향으로 되돌아가셔서 어린 그는 밤에는 할머니 옆에서 자고 아침이면 도시락 싸 가지고 지게에 지고 산에 올라가서 있다가 밤엔 할머니하고 자는 일을 보름 동안 반복했다.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더이상 할머니에게 갈 수 없었고, 마지막 인사를 남기지도 못한 채 70여 년을 헤어져 살게 되었다. 연평도를 거쳐 만석동으로, 만석동에서 생활을 찾아 검단사거리의 피란민 수용소까지 밀려오게 되었다. 고향에서 송림초등학교 5학년을 다니다가 검단초등학교를 다니게 된 그는 초등학교를 18세에 졸업하게 된다. 운동도, 공부도 잘하다 보니 반장을 도맡아 하고 운동회 때가 되면 학용품을 사서 써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상을 타기도 했다. 3살을 줄여서 김포중학교를 다니면서 장학생이었지만 가정 형편상 양조장 아르바이트까지 도맡게 된다. 고등학교는 인천사범학교를 무사히 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떨어지게 되었고, 인천고등학교 상과에 들어가서 수판을 배워 은행에 취업하리라 마음을 먹는다. 하지만 사범학교에 대한 미련이 남아 지인을 통해 보결로 사범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부모님도 무척 자랑스러워하셨다. 초등학교 때 반장을 도맡아 하던 그는 당시 부반장이었던 분과 24세에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다. 부인에게 아이와 완고하신 부모님을 맡기고 군대를 다녀온 일은 두고두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33개월의 군 생활을 마치고, 1964년 강화도의 작은 마을에 있는 수남초등학교로 첫 발령을 받았다. 이후 단봉초, 서화초, 송림초 등 여러 학교를 거쳐 1999년 35년 교직 생활을 신석초등학교에서 공로퇴직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구술자 이택수와의 면담은 서구문화원에서 진행되었다. 면담 내내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주셨고, 순간순간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을 때도 호탕한 웃음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셨다. 1차 면담하고 나가시면서 “나, 오늘 이야기 다 했어. 이제 안 와도 되지?”하고 퇴장하셔서 마음을 줄이게 만드셨다. 그런데 2차 면담하는 날 그는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북의 문화인 것 같아서 이야깃거리 준비해왔어.”라고 하시면서 묵직한 이야기보따리를 하나하나 풀어주셨다. 2차 면담 내내 카메라를 담당하신 분도,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도 웃음을 참지 못할 정도로 재미있었던 화장실 문화, 관혼상제 풍습, ‘의식주’ 문화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인천의 웅진과 연결되어 있어 더 정겨운 이름 웅진군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것도, 검단사거리 일대가 피란민 수용소였다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것에 굉장한 보람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드시던 약을 끊었다고 하셨는데 잘 챙겨 드시고, 지금처럼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본다.





# 이호근

## 약력 및 주요 활동

- 1945년 함경도 신흥군 광대리 출생
- 1949년 인천 주안으로 남하
- 1950년 제주도로 피란
- 1951년 부산으로 피란
- 1952년 이후 인천 정착
- 1965년경 베트남 파병
- 1970년 이후 기독병원, 한국타이어, 동국제강,  
대성목재, 동화기업 근무



## 배고픈 피란 생활 속 더욱 빛이 난 그 이름

이호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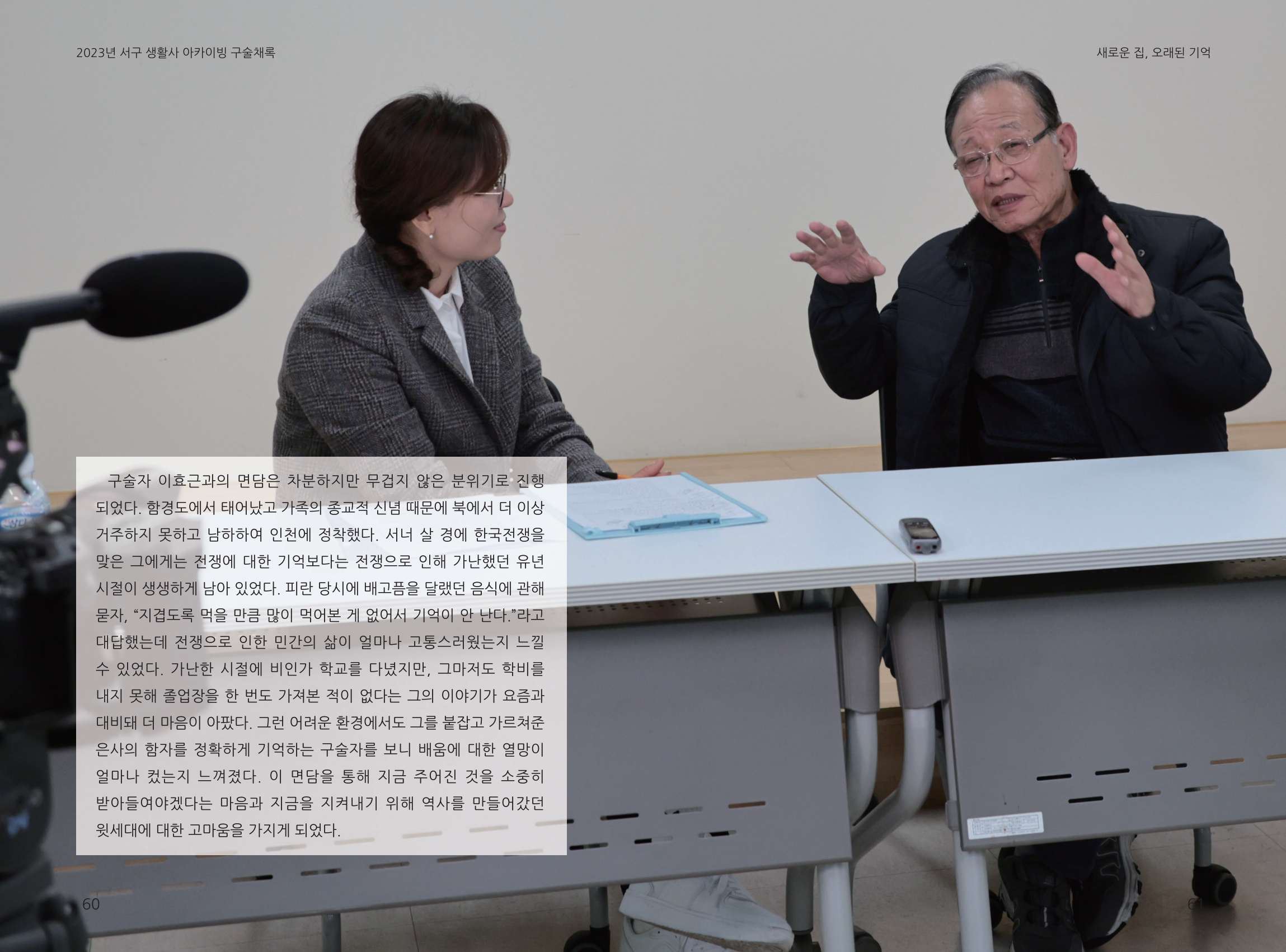
이호근은 1945년 함경도 신흥군에서 태어나 한국전쟁이 나기 전에 종교적인 이유로 남하하였다. 전쟁이 발발한 후 제주도 1년 정도, 부산에서 1년 정도 피란 생활을 하였다. 고향의 과수원과 집 두 채 등 재산을 두고 맨몸으로 피란을 왔기에 남하하면서부터 가난을 겪어야만 했고, 피란 생활은 가난과 배고픔의 시간을 건디는 생활이었다. 베트남 파병을 거치며 초가집을 증축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가정을 꾸렸다. 비록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장은 없지만, 끊임없이 공부하였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기능사 1급 시험에 합격하여 보일러 기관장으로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으며 인천 서구에서 40년 넘게 거주 중이다.

그는 9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 두세 살 경 가족의 종교적인 이유로 인천시 주안동으로 남하하였다. 함경도의 기억은 없어 그의 누님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함경도에서는 과수원을 경작하며 집이 두 채나 있는 부유한 형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기독교 신자인 상태에서는 북에서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 같아 가족 모두 모든 것을 북에 두고 인천 주안으로 내려왔다. 남하 이후에는 가난한 생활이 이어졌고 전쟁으로 인해 2년 이상의 피란 생활을 겪으며 생활 터전을 유지하지 못하여 가난의 시간은 계속 길어졌다. 제주도와 부산을 거쳐 인천 동구 수도국산에 정착했으며 이후 교회의 사찰로 일하는 부모님을 따라 인천 중구의 교회 사택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인해 비인가 학교에 다녔으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졸업은 하지 못했다. 1960년 중후반에 베트남 파병을 다녀온 이후 기존에 살던 초가집을 증축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장근무를 36시간까지 하며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했고 기능사 1급 시험을 높은 경쟁률임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여 기관장이 되었다. 장남이 아니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어렵게 살아온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었던 그는 이름부터 효도 '효'자에 뿌리 '근'이라며 효도하는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가난했던 본인의 유년 시절을 자녀들에게는 물려 주고 싶지 않아 누구보다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며 자녀들의 학업을 끊임없이 응원하고 공부하고자 하면 끝까지 지원해 주었다.





구술자 이효근과의 면담은 차분하지만 무겁지 않은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함경도에서 태어났고 가족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북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남하하여 인천에 정착했다. 서너 살 경에 한국전쟁을 맞은 그에게는 전쟁에 대한 기억보다는 전쟁으로 인해 가난했던 유년 시절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피란 당시에 배고픔을 달랠던 음식에 관해 묻자, “지겹도록 먹을 만큼 많이 먹어본 게 없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대답했는데 전쟁으로 인한 민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느낄 수 있었다. 가난한 시절에 비인가 학교를 다녔지만, 그마저도 학비를 내지 못해 졸업장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그의 이야기가 요즘과 대비돼 더 마음이 아팠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를 붙잡고 가르쳐준 은사의 함자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구술자를 보니 배움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느껴졌다. 이 면담을 통해 지금 주어진 것을 소중히 받아들여야겠다는 마음과 지금을 지켜내기 위해 역사를 만들어갔던 윗세대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게 되었다.



# 추응준

## 약력 및 주요 활동

- 1936년 황해도 옹진군 순위도 출생
- 1950년 순위도에서 백령도를 거쳐 덕적도로 피란
- 1953년 덕적도 피란민수용소에서 지냄
- 경인실업 취직
- 경인실업 퇴직



## 포화 속 피란 길과 불꽃 속 삶의 길

추응준

추응준은 1936년 황해도 웅진군 홍미면 순위도에서 태어났다. 그곳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살았다. 중선 9척을 소유한 아버지는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저 멀리 중국까지 고기를 잡으러 다니셨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전쟁 발발 당일 식구들과 배를 타고 백령도로 피란 나온 후, 덕적도 피란민 수용소에서 3년간 피란민 생활을 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작은아버지가 있는 안동포로 이주하였다. 결혼 후 군대 다녀와서 경인실업에 취직하여 발파 작업으로 40년을 보내고 제2의 고향 안동포에서 살고 있다. 추응준은 순위도 창바위(창암리)에서 조부모와 부모 슬하의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어릴 적 친구들과 공치기, 돌멩이 던지기를 하거나 나무칼을 만들어 칼싸움도 하였다. 순위도는 작은 섬이어서 다니는 큰길을 중심으로 좌우에서 물건을 팔고 하였다. 순위도 남쪽에 좋은 모래가 있는 해안 사구가 있어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가져갔었다. 육지로 이동하려면 목선을 타고 '창바위'에서 '동암리'까지 묶어 놓은 줄을 당겨가면서 오고 갔다. 배를 타고 어업을 하러 나갈 때는 용왕께 제를 지냈는데 음식을 조그만 시루에 담아 가서 바다에 뿌렸다. 명절 때 떡국과 만두를 해 먹었는데 만두 속으로 민어를 넣었다. 아버지는 중선 9척을 가지고 있어서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또 중국까지 먼 바다를 다니며 조기, 민어, 홍어 등을 잡아 왔다. 중선을 타고 한 번 나가면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고기를 잡아 왔다. 순위도에는 어업조합이 있어서 백령도에서도 고기를 팔러 왔는데 봄에는 조기, 가을에는 홍어 민어가 제철이어서 고깃배가 수백 척 들어왔다. 작은아버지는 용호도에 있는 수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쟁이 나기 전, 김포 어업조합으로 발령받아가셨다. 이후 비가 오는 어느 날, 번개가 치듯이 번쩍거리고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전쟁이 난 줄 알았다. 전쟁이 나자 '창바위'에서 목선을 타고 백령도로 피란하였다. 이후 덕적도에 피란민 수용소가 있다고 하여 덕적도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한 3년간 살았다. 당시 군인 막사에서 지내며 배급을 타서 먹고, 바다에 나가 물고기도 잡고, 산에서 나무 베어 팔며 생계를

유지했다. 배급은 밀가루를 주었는데 한 사람마다 60kg 한 포대씩, 한 달 치를 주었다. 보급품으로 담요와 옷도 주었다. 당시 덕적도 피란민 수용소에는 웅진군에 있는 크고 작은 섬에서 탈출한 수천 명이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작은아버지가 있는 인천 안동포로 들어올 수 있었다. 안동포에는 연백, 용매도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다. 작은아버지는 안동포에서 어업조합 이사로 계셨다. 아버지는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가시고 다른 피란민들은 안동포에서 농사를 지었다. 안동포에서 살면서 당산에서 당제 지내는 것도 보았고 어릴 적 마을에 장승이 있는 것을 보았지만 언제 없어졌는지 기억에 없다. 금호동에는 연백 수용소가 있어서 연백에서 온 피란민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염전 일을 하였다. 27살에 안동포 신부를 맞아 결혼하고 군대에 갔다. 제대한 뒤 경인실업에 취직하여 발파 일을 하였다. 석남동과 가좌동 일대에서 발파 작업을 하였는데, 동네가 많이 바뀌어 중학교도 생기고 공장도 생기고 아파트도 생겼다. 결혼하여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동네 계원들이 도와주었다. 고향을 생각하면 어머니와 동생들의 모습, 바다에서 조기 잡고 미역 따오던 모습들이 눈에 선하다. 고향에 가보고 싶고 북에 있는 가족들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되던 시기에는 사는 것이 어려워서 신청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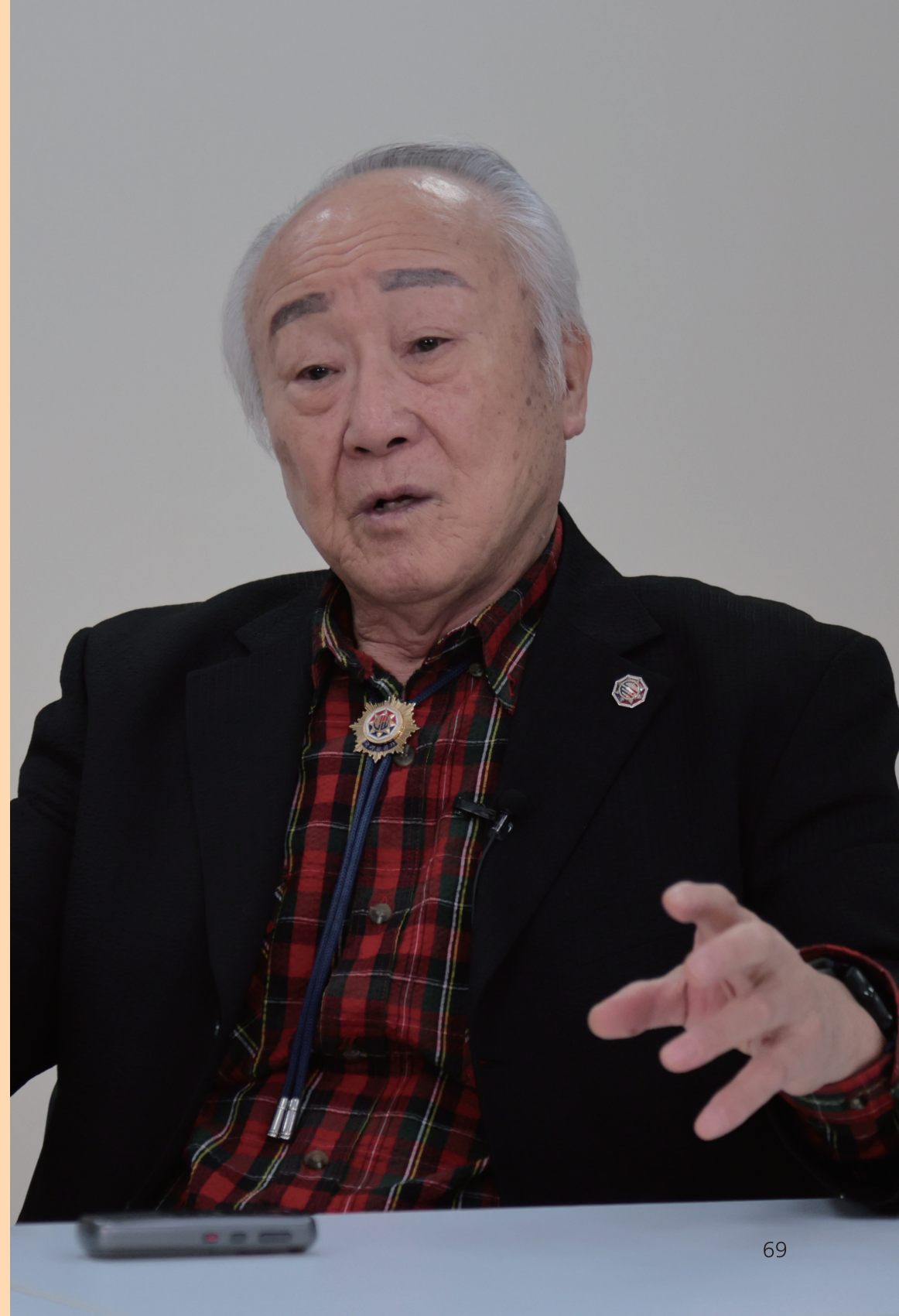
구술자 추응준과의 면담은 그의 자택에서 진행되었다. 지도를 통해 흥미면과 순위도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어릴 적 지냈던 지역의 모습을 회상하며 면담이 진행되었다. 어릴 적 바다에서 고기 잡고 조개 캐고 미역 따던 기억이 눈에 선하다고 하시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셨다. 급하게 피란 내려오면서 함께 나오지 못한 엄마와 동생들이 보고 싶지만 사는 것이 어려워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하셨다. 중선 9척을 소유할 만큼 부유했지만 피란 내려와 정착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웅진군에 속하는 순위도는 크기가 작은 섬이지만 어업조합이 있어서 백령도와 주변의 많은 섬에서 잡은 물고기를 매매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전쟁당시에 덕적도에 피란민 수용소, 금호동에 연백 피란민 수용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혼 후 경인실업에 취직하여 발파 작업을 오랫동안 종사하셨다. 며칠만 피해 있으면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떠난 피란길이었다. 하지만 70여 년이 흘렀고, 그 사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현재는 안동포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살아오셨지만, 막상 순위도의 지도를 보자 옛 생각이 떠올라 눈물을 지으셨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막을 수 없어 보였다.



# 한호근

## 약력 및 주요 활동

- 1943년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출생
- 1945년 호적 신고
- 1947년 인천시 동구 화평동으로 이사
- 1950년 1.4후퇴 때 충청도 외가로 피란
- 송현초등학교 졸업
- 인천중학교 졸업
- 인천고등학교 졸업
- 베트남전쟁 파병
- 중동 사우디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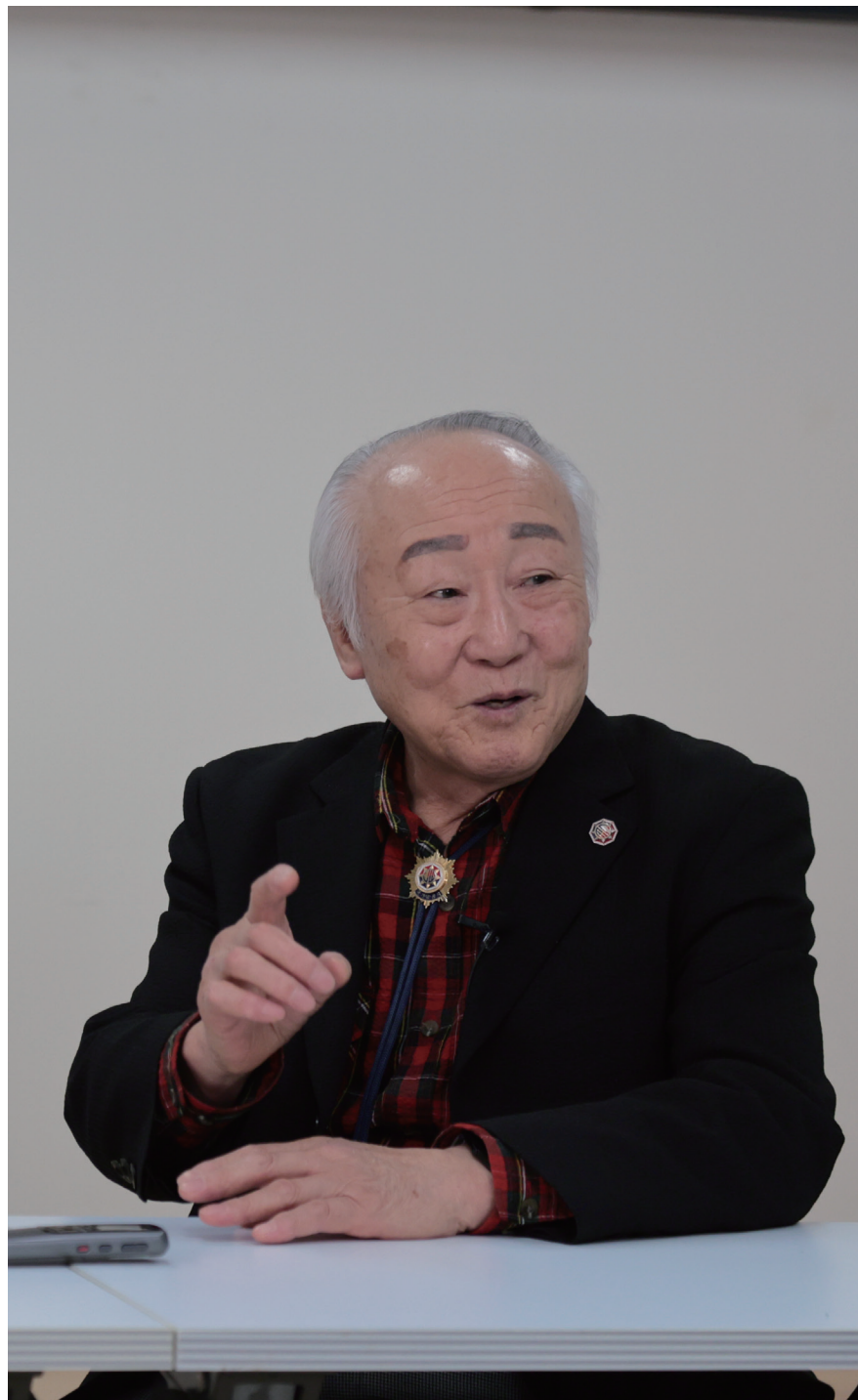


## 토굴 속 아버지를 지켜낸 불굴의 용기

한호근

한호근은 1943년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에서 태어났다. 호적 신고가 늦어 1945년생으로 출생등록이 되었다. 한국전쟁 발발로 충청도 외가로 피란을 갔다 다시 인천 본가로 돌아왔다. 인천에서 대부분의 유년 시절을 보냈고 중, 고등학교 시절 은사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고 한다. 베트남전쟁에 파병되어 군 생활을 했고, 제대 후, 결혼하고 중동 파견을 선택하여 근무했다. 그는 전쟁 중 피란 생활에 대한 기억과 전쟁 후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구술했다.

그는 1943년 서울 용산에서 태어나 인천으로 이사한 직후 한국전쟁을 맞았다. 호적상으로 1945년생으로 1.4후퇴 때 7세의 나이지만 피란 과정을 잘 기억하고 있어 피란길에서의 사람들 모습과 피란길에서 먹었던 주먹밥, 눌은밥 등 피란 과정을 상세하게 들려주었다. 외가 친척네를 거쳐 충청도 홍성의 외가에서 피란 생활을 하였고 피란 생활 중이었지만 어린 나이로 사촌 누나와 물방개 구워 먹고 대추 따먹으며 놀던 재미났던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전쟁에 징집되지 않기 위해 토굴에서 숨어지낸 아버지의 이야기와 아버지의 부재로 식물을 챙겨야만 했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그런 어머니와 친근하게 지내며 심부름도 제일 잘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는 ‘대우중공업’에 다니는 기술자였고 ‘청년단’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그것 때문에 전쟁 중에 ‘바닥빨갱이’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인민군이 찾아와 그를 심문하기도 했다. 그래서 토굴로 숨어들어 지낼 수밖에 없었다. 충청도에 피란을 가서도 토굴에서 지냈으며 피란지에서 한 번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피란 후에 인천집으로 돌아올 때조차 아버지와 함께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비교적 넉넉했던 가정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인해 멈춰있던 밀가루 공장에서 밀가루를 가져다 몇 년을 두고 먹을 정도로 전쟁 후의 생활이 많이 어려웠다. 그런 이유로 베트남 파병, 중동 파견 등을 거치는 힘든 청년 시절을 보냈지만, 아들로써,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했음에 마음 아파했다.







구술자 한호근과의 면담은 ‘인천서구보훈회관’ 교육장에서 힘차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호적상으로 1945년생이지만 1943년 출생인 그는 어린 나이지만 전쟁 중에 있던 일과 피란길에 있었던 일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었고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전쟁에 대한 기억은 배고프고 힘들고 끔찍한 장면들이 있기도 했지만, 천진난만한 시절도 분명히 있던 것 같다. 피란지에서 사촌 누나와의 추억이 그러했는데 지금도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전쟁으로 인해 인민군과 국군, 미군을 대면한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서도 신기한 것들을 발견해 내는 어린아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구술채록을 진행하며 전쟁에 대한 상처보다는 전쟁으로 인해 어린아이들의 행복해야 했을 삶이 배고프고 가족을 걱정해야 했던 삶이었던 것에 마음이 아팠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아버지의 부재로 고생한 어머니를 위해 베트남 파병을 택했고 결혼 후에는 가족을 위해 중동으로 파견을 택한 그의 아들로서, 가장으로서의 삶은 분명 수고 많았던 위로와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 생각되었다.





# 황순서

## 약력 및 주요 활동

- 1943년 황해도 웅진군 출생
- 1949년 황해도 소재의 초등학교에 입학
- 1950년 1.4후퇴 때 피란
- 1957년 서곶초등학교 졸업
- 1960년 인천사범중학교 졸업
- 1961년 제물포고등학교 입학
- 1964년 파주 문산 면사무소 근무
- 1984~2000년 서인천 새마을 금고 초대 이사장, 연희동 통장  
바르게살기 위원장, 88올림픽 대의원 등 역임





## 피란과 함께 고향에 두고 온 그리움의 시간

황순서

황순서는 1943년 황해도 용진군 냉정리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발발 후 1.4후퇴 즈음에 충청도로 피란을 내려왔다. 선박을 보유하고 있던 외할아버지 덕에 콩을 20가마니 싣고 내려왔으나 충청도에서 무의도로, 무의도에서 다시 서산으로 그리고 다시 인천으로 피란을 다니며 황해도에서 챙겨온 곡식은 부족했고 인천시 서구 공촌동 피란민 수용소에 정착하게 되었다. 청년 시절 파주 문산에서 면사무소 서기, 단위농협 참사직을 맡아 했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 서구 공촌동에서 새마을금고를 개설하고 초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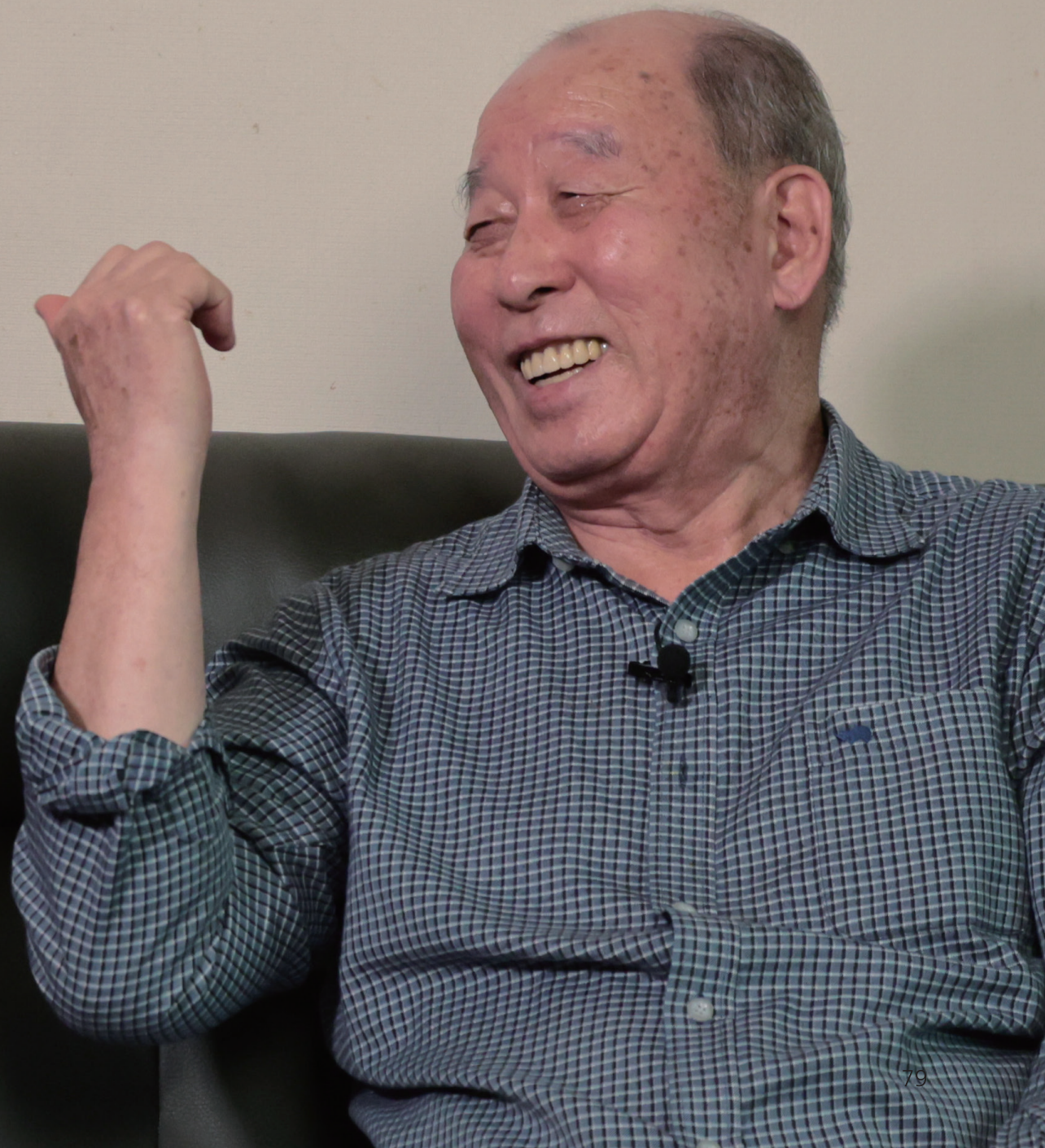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의 모습이나 피란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어 한국전쟁과 피란 과정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의 고향은 논농사와 밭농사의 농업과 더불어 어업에 종사했으며 그의 친가는 농업에, 외가는 어업에 종사하였다. 냉정리 인근에는 비행장이 있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자주 보며 자랐으나 비행장 근처에 가보지는 못했다고 한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인민군과 국군의 교차점령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고, 그의 아버지도 순위도로 피신을 자주 하셨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유년기의 기억에는 어머니가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하셨고 자녀들 양육 또한 전적으로 어머니의 몫이었다고 한다. 피란을 내려오게 된 것은 잦은 피신으로 인해 더 이상 고향에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외할아버지의 배를 이용해 피란길에 올랐으며, 피란 당시에 콩 20가마를 배에 싣고 이것을 팔아 피란 생활을 했다고 한다. 피란길에는 동네 사람들이 같이 배에 올랐으며 대부분 옷가지만 챙겨 피란을 왔다. 피란지에 와서는 짐을 나르거나 땀감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으며 차후엔 피란지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보다는 38선 인근지역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전쟁이 끝나면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의 가족의 피란 경로는 아산 둔포를 거쳐 무의도에서 몇 개월을 보내고 인천 서구 공촌동이 종착지가 되었다. 아산 둔포와 무의도는 일가친척이 있어 머물게 되었고 인천 서구

공촌동은 인천 부두에서 만나기로 한 당숙과의 약속이 어긋나며 정착하게 되었다. 당시 300평의 토지와 집을 지을 재목을 제공했던 공촌동 피란민 수용소는 피란민들에게 큰 이점이 아닐 수 없었다. 학창시절에 배구부의 선수로 활동 할 만큼 키가 훗칠했고 공부도 잘해서 사범중학교에 시험을 치러 합격하였다. 공촌동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고 파주 문산에서 첫 직장인 면사무소에 다녔으며 단위농협 참사직을 맡아 일하였고, 결혼도 그 시기에 하였다. 타지에서 기반 없이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자연에 한계를 느끼고 부모님이 계시는 인천 서구 공촌동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공촌동에서는 '삼우회'를 조직하여 동네 치안을 위해 자율방범을 하고 동네에서 공용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장례용 상여를 두어 조사가 있을 때 서로 도왔고 마을에 엠프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삼우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다. 이후 서인천 새마을금고 초대 이사장을 지냈으며 연회동 통장, 바르게 살기 위원장, 88올림픽 대의원 등을 역임하였다.





구술자 황순서와의 면담은 그의 자택에서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피란 당시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황해도에 대한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전쟁과 피란에 대한 기억들도 상세하게 묘사를 해주었다. 특히 피란 과정에서 배에 오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시절을 겪어 보지 못한 면담자인 나에게는 상상조차 어려운 힘겨운 과정이었을 거란 느낌이 들었다. 고향마을의 모습이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난다는 구술자는 자신의 고향은 황해도 웅진군 냉정리라고, 70년 삶의 터전인 인천 서구 공촌동이 아닌 7년의 유년 시절을 보낸 그곳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고향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모와 함께 등교하던 황해도의 학교 가는 길이 그의 머릿속에 생생할 것 같았고 여전히 그리워하고 계신 것 같았다. 여든을 앞둔 그의 마지막 구술은 아내에 대한 고마움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부부가 함께 지내온 시절의 애뜻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면담 시간이었다.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는 학생들과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공존하던 시대, 인민군과 국군이 날을 달리하며 마을에 다녀가던 시대, 살기 위해 가족을 챙길 여력 없이 피란길에 올라야 했던 그 시대의 상황을 차분히 들려주는 그의 이야기에서 피란민의 삶을 고스란히 전해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성인이 되어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으나 자식들이 무탈하게 잘 성장한 것에 대한 감사로 자신의 삶을 결론짓는 그의 말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 04 면담자 인터뷰

면담자 인터뷰

면담자 인터뷰

면담자 인터뷰

면담자 인터뷰

면담자 인터뷰

면담자 인터뷰

면담자 인터뷰

면담자 인터뷰



# 김혜경

## 면담자



### 01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에 참여하시게 되었는데요. 참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올해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은 전쟁으로 피란 내려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상흔 많은 전쟁과 실향민들이 서구에 정착하며 지금의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오신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 02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에 참여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있을까요?

고향을 떠난 지 벌써 7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구술하시는 분들의 연세가 80세가 넘으시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하실 것 같은데 볼 수 없는 가족과 못 가는 고향을 향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 03 ‘구술채록’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실까요?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부평문화원에서 진행했던 일제강점기 조병창 관련 지하호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구술채록을 통해 부평이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되어 병기를 만들던 아픈 역사의 현장이었다는 것과 당시 징용된 분들의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2022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을 통해 지역민들이 잊혀져 가는 서구의 역사와 변화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역 구술채록의 경우 어렵게 살아왔지만 정을 나누고 함께 어울렸던 과거와 발전되어 더 좋은 지역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기록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구술채록의 경우는 서구에서 살아오신 분들 중 피란 내려와 현재의 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했던 분들이 이야기입니다. 제2의 고향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고향에 못 가는 아픈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서구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04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을까요?

인천이 황해도와 가깝기에 피란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살아왔던 분은 포구에, 농사를 지었던 분들은 농촌을 중심으로 터전을 마련하여 아픈 마음을 미뤄두고 서구에서 살아오셨습니다. 피란 내려와 고생하며 터전을 다져 온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여기가 고향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서구에서 살아왔던 긴 세월 속에서 내가 살아왔고 살아갈 곳이라는 말씀이 뭉클하였습니다.

## 05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에 진행 중 가장 보람 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고향을 그리는 마음과 이북에 있는 동생들을 알릴 수 있는 구술채록을 남길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하시는 모습과 고향인 순위도의 지도를 보며 그림고 반갑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며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기뻐했습니다.

## 06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을 진행하며 이점은 ‘조금 아쉬웠다’라거나 ‘더 질문할걸’ 하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너무 힘들게 살아오시다보니 건강에 문제가 생겨 구술채록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 07 이번 면담을 기점으로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피란’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나 생각 중 달라진 게 있을까요?

저는 태어난 고향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조금 있으면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 버린 아픔은 상상 이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08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에 참여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구술자와 부인,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 방문하자고 했지만 만날 수도 없고. 이제는 연세가 드시면서 기대를 접으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 09 이번에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에 참여하게 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구의 역사와 함께 한 피란민들의 아픔과 노력이 지금의 발전하는 서구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10 이걸 구술자 선생님들께 공통으로 드렸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선생님께 ‘서구’란 어떤 의미일까요?

서구는 타 구에 비해 발전이 더딘 곳이었지만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간직 할 수 있었고 그동안 축적되었던 저력을 발휘하여 더욱 변화되고 발전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는 '기대되는 곳'입니다.

# 남영순

## 면담자



### 01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에 참여하시게 되었는데요. 참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문화유산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마을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고 사람들에게 마을의 생활모습을 이야기 해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1년도에 아카이빙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마을 활동가들에게 해설에 풍성한 힘을 준다고 생각하여 올해도 참여하였습니다.

### 02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에 참여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있을까요?

구술자분이 주인공이기도 하고 활동가들도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 저는 무대 올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대를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최대한 밝은 분위기로 구술자분들을 이끌어 가야겠다 생각하고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구술자분들이 예전 모습을

기억해냈을 때 공감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구술자 분이 이야기한 그 장소에 가서 그분이 느꼈을 감정을 느껴보려고 노력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 03 '구술채록'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실까요?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고려인에 대한 아카이빙을 해본 적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증거를 직접 보게 된 게 고려인 구술채록이었는데 그분들에 공감이 돼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아픈 역사에 대해 감내하고 살아오신 분들의 일생에 공감하며 슬퍼하기도 하고 이분들 기록을 남기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의 역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04 '2023 서구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을까요?

서구에 피란민 대피소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생소했고 가정오거리가 허허벌판이었고 그런게 상상이 잘 안되어 생소하고 흥미로웠습니다.

### 05 '2023 서구생활사 아카이빙 구술 채록'에 진행 중 가장 보람 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어떻게 구술자 분들을 맞이할까 신경을 많이 쓰는데 구술자 분들이 1차 면담할 때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못하셔서 면담이 끝나고 나면 걱정이 많아지는데 구술자 분들이 2차 면담 때 오셔서 주제나 핵심적인 부분을 파악하셔서 말씀해주실 때 기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 06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을 진행하며 이점은 ‘조금 아쉬웠다’라거나 ‘더 질문할걸’ 하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은 정리가 잘되는 느낌이고 어떨 때는 형식이 갖춰지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 생겨 질문하는 부분에 한계가 생기고 질문을 마음껏 못한게 아쉽습니다. 또한 피란민 이야기들이어서 그 지역을 완전히 파악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 07 이번 면담을 기점으로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피란’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나 생각 중 달라진 게 있을까요?

제 주위 어른들 중에서는 피란 오신분이 안 계셔서 피란이라는 말이 멀게 느껴지는 단어였는데 이번을 통해 피란민들이 겪었을 마음들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피란민이 예민하고 어려웠던 말이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그분들의 아픔을 더 이해하고 안타까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 08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에 참여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구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분들 이야기가 기억에 남지만 글을 다듬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어서 그분들 이야기의 줄거리가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기억에 남고 소중한데 마지막 김재현 선생님 2차 면담 때 삶에 고단함이 느껴지는 시간들을 지내오셨는데도 항상 삶에 욕심을 내지 않으셨고 현재에 만족하고 살아오셨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 09 이번에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에 참여하게 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누군가 저한테 저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하면 내 인생이 무슨 역사가 될 수 있냐고 이야기 할 거 같습니다. 참여하신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선생님들께는 사소해보일 수 있는 삶이 모여서 하나의 역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소중한 경험 주셔서 감사합니다.

## 10 이걸 구술자 선생님들께 공통으로 드렸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선생님께 ‘서구’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한테 서구는 ‘친한 친구’입니다. 일단 집이 가깝고 저는 서구에서 만나서 차도 마시고 서구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고 보기 위해 길을 많이 걸어다니는데 서구는 옆에서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는 친한 친구입니다.

# 이승지

## 면담자



### 01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에 참여하시게 되었는데요. 참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인천 서구 역사해설을 하면서 서구의 역사에 관심이 깊어져 향토사 연구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 02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에 참여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있을까요?

구술자의 인터뷰 당일 컨디션에 따라 촬영의 흐름에도 영향이 생겨 사전 인터뷰를 하며 구술자의 당일 컨디션 체크를 계속적으로 하였습니다.

### 03 '구술채록'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실까요?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구술채록 활동을 처음 진행해보는데 구술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역사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역사이야기를 실감나게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역사적 흥미로움이 더 많이 생겼고 구술채록에서 알게된 내용을 역사적 고증을 해보는 것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 04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을까요?

국군과 인민군의 공존공간이 삶의 터전인 사람들이 전쟁 중에도 살아가야하는 생활고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었고 가족도 챙기지 못하고 피란가는 배에 오르거나 가족을 살리기 위해 위험함을 자처하는 등의 피란과정의 처절함을 더 상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 05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에 진행 중 가장 보람 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구술자들에게 고향을 한 번 더 상세하게 떠올릴 수 있게 해드린 것 같아 보람있었습니다. 특히나 구술자들이 공통적으로 들려준 이야기가 스승에 대한 감사의 기억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구술자의 표정을 보며 이런 회상의 시간을 드릴 수 있음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 06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을 진행하며 이점은 '조금 아쉬웠다'라거나 '더 질문할걸' 하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구술자와의 사전 인터뷰 시간이 부족하여 인터뷰를 조금 더 흥미롭게 이끌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 07 이번 면담을 기점으로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피란’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나 생각 중 달라진 게 있을까요?

80년대 출생인 제겐 전쟁과 피란에 대한 의미나 생각은 현실적이거나 직접적이지 않았습니다. 피란민들이 삶의 터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이야기를 들으며 전쟁의 시기를 살아낸 인생의 선배님들이 존경스럽단 생각과 공경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 08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에 참여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구술 중에 피란민들이 배에 오르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전쟁이 시나브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날 갑자기 준비 없이 다가오는 재앙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장 인상에 깊이 남습니다.

## 09 이번에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에 참여하게 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천 서구지역 역사해설사로 아이들에게 서구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제겐 이번 아카이빙 구술채록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사업에 참여하며 들은 이야기와 내가 느꼈던 소감을 아이들에게 전해 줄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 10 이번 구술자 선생님들께 공통으로 드렸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선생님께 ‘서구’란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를 키우며 서구에 정착하게된 제게 서구는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곳이고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던 제가 다시 일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었던 곳이라 제게 서구는 ‘가족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 전미경

## 면담자



### 01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에 참여하시게 되었는데요. 참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의 한계가 있기에 필요한 기록.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기록되지 않은 사실이 없어지거나,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에, 소중한 옛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심에 감사하며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02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에 참여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있을까요?

구술자 분들을 만나기 전에 준비한 ‘질문내용’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피란 오신 분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을 해야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피란 당시, 많이 어렸기는 했지만 그때의 기억으로 힘들시지는 않으실까 마음도 쓰였던 것 같습니다.

### 03 '구술채록'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실까요?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작년에 연수문화원과 서구문화원에서 구술채록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지역 모두 개발로 인해 옛 모습을 많이 잃은 지역이었지요. 이번 서구문화원에서 진행한 구술채록은 지역의 변화가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이주할 수 밖에 없었던 피란민들의 삶과 그 분들이 기억하는 인천 서구를 들여다 볼 수 있어 매우 귀중하고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 04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을까요?

인천에 한국전쟁 피란민이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을 통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전쟁의 시작 모습을 직접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알게 되었고, 그 분들이 인천의 여러 섬을 거쳐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서구에 정착하기까지의 이야기로 인천의 피란민 스토리를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 05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에 진행 중 가장 보람 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한국전쟁을 겪지 못해서, 전쟁 당시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픈 역사의 한복판에 계셨던 분들을 만나, 그 분들의 상처와 아픔을 나눌 수 있어 참 다행이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갈 수 없는 고향을 잠시나마 그리워 할 수 있었던 시간이 구술자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06**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을 진행하며 이점은 ‘조금 아쉬웠다’라거나 ‘더 질문할걸’ 하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시간과 상황이 여유가 좀더 있었다면, 조금더 많은 피란민 분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인천 속에 피란민들의 역사가 적지 않을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07** 이번 면담을 기점으로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피란’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나 생각 중 달라진 게 있을까요?

‘피란’ 정말 난리를 피하는 것이라는 말이지만,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등지며 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 살았던 고향을 떠나는 것도,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08** ‘2023년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에 참여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용호도, 용매도 등 북쪽에 있는 섬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었던 이야기와 북한을 탈출하여 인천의 여러 섬을 거쳐 인천까지 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09** 이번에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에 참여하게 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어느하나 일방적이어서는 이루어 질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란민들이 많이 올 수 밖에 없는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서구가,  
이곳으로 피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다는 사실에 감동했고, 아낌없이 오랜 기억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인천 그리고 서구의 기억을 기록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고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10** 이번 구술자 선생님들께 공통으로 드렸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선생님께 ‘서구’란 어떤 의미일까요?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이웃이고요, 인천이 품는 도시라면 인천 서구 또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디넓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다와 육지 그리고 하늘을 이어주는 서구, 앞으로 더 발전하는 서구를 응원합니다.

2023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빙 구술채록

## 새로운 집, 오래된 기억

**발행일** 2023년 12월 22일

**발행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A.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5, 쓰리엠타워 7층

T. 032-582-4341

F. 0502-582-4742

H. [www.insecc.kr](http://www.insecc.kr)

**기획총괄** 서덕현

**기획운영** 정다희

**집필** 김혜경 남영순 이승지 전미경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